

안세영, 인도네시아 오픈 ‘정상’...2주 연속 우승

결승서 세계랭킹 3위 야마구치에 2-0 완승 말레이시아·인도·싱가포르 이어 ‘파죽지세’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국제대회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전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세계랭킹 3위)를 2-0(23-21 21-12)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주에 열린 싱가포르 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었던 안세영은 이로써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또 2025년 이 대회 우승에 이어 2연패에 성공했다.

안세영은 올해 최고의 활약으로 연속 기도를 달리고 있다.

말레이시아오픈 3연패, 인도오픈 2연패, 아시아남녀단체선수권, 우버컵(단체전), 싱가포르오픈에 이어 인도네시아오픈까지 석권했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은 단 한 게임만 내준 채 우승을 따냈다. 대회 32강전에서는 네슬리안 아르(튀르키예·세계랭킹 29위)를 2-0으로 가볍게 제압한 뒤 16강전에서 푸살라 신두(인도·세계랭킹 10위)를 2-0, 8강전에서 초후영(태국·세계랭킹 8위)을 2-0으로 꺾었다. 이 경기

로 안세영은 개인 통산 400승 고지도 밟았다.

특히 4강전에서는 ‘천적’ 천위페이(중국·세계랭킹 4위)와 2-1로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 경기 3게임에서 안세영은 10점차 리드를 내줬음에도 승부를 뒤집는 기염을 토했다.

결승전 상대는 직전 대회 싱가포르 오픈 결승전에서 만난 야마구치였다. 이날 안세영은 야마구치에게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으며 경기를 지배했다. 그 결과 상대 전적 18승 15패로 앞섰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로 격차를 더욱 벌렸다.

1게임은 쉽지 않았다. 안세영은 2-2 이후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한때 4-8까지 밀렸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랭킹 1위의 전력은 빛났다. 공격적인 플레이로 전환한 안세영은 날카로운 스매싱과 정교한 코스 공략으로 흐름을 되찾았다. 야마구치의 리턴 패턴을 정확히 읽어내며 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11-9로 앞선 채 인터벌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안세영은 대가 공격과 역방항 코스를 적절히 활용하며 야마구치의

수비를 흔들었다. 야마구치가 특유의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 추격했지만 안세영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경기 막판에는 치열한 집중력 싸움이 펼쳐졌다. 안세영이 게임 포인트를 잡았지만 야마구치가 20-20 듀스를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안세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듀스 이후 결정적인 순간마다 공격을 성공시키며 23-21로 첫 게임을 따냈다.

기선을 제압한 안세영은 2게임에서 더욱 강해졌다.

초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안세영은 긴 렐리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다. 안정적인 수비로 상대 공격을 받아낸 뒤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먼저 11점 고지에 올랐다.

인터벌 이후 승부는 사실상 안세영 쪽으로 기울었다.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 안세영은 연속 득점으로 13-8까지 달아났다. 특유의 넓은 수비 범위와 완벽한 코트 커버리지를 앞세워 야마구치를 지치게 만들었고, 상대의 범실까지 유도하며 점수 차를 벌렸다.

이날 경기 최다인 7점 차 리드를 만든 안세영은 이후에도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야마구치를 12점에 묶어둔 채 17점부터 21점까지 몰아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안세영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전에서 야마구치 아카네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18면

‘루키’ KIA 김민규, 기회 잡고 주전 향해 뚝다

주말 3차전서 데뷔 첫 선발 출전...“제 역할 다할 것” 이범호 감독 “근성·야구 이해도 높아...필요한 선수”



김민규

“(김)도영이 형 같은 슈퍼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KIA타이거즈 루키 외야수 김민규가 조금씩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빠른 발과 과감한 플레이, 신인답지 않은 침착함까지 더해지며 KIA 외야의 새로운 주전 후보로 떠오른다.

2026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30순위로 KIA 유니폼을 입은 김민규는 올 시즌 1군 무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LG트윈스전에서 대주자로 데뷔한 뒤 22~24일 SSG랜더스전에서 대주자로 나서 득점을 올렸다.

지난달 27일 키움히어로즈전에서는 첫 타석을 경험했고, 29일 LG전에서는 데뷔 첫 안타를 2타점 2루타로 장식했다. 이어 6월 6일 삼성전에서는 2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첫 멀티히트까지 작성했다.

그 결과 김민규는 7일 삼성라이온즈전에서는 데뷔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 기회를 받았다.

신인답지 않은 침착함과 과감함을 갖춘 김민규는 KIA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각오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만난 김민규는 데뷔 첫 선발 출전에 대해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스타팅으로 나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며 “훈련할 때부터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부담보다는 설렘이 더 크다”고 웃었다.

이어 “감독님께서 백업 선수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게 해주신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며 “중요한 경기를 경험하면서 스타팅으로 나가더라도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김민규는 1년 차 루키임에도 과감함을 갖췄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경기 운영 능력이다. 김민규는 대주자로 출전한 순간부터 상대 배터리와 움직임과 볼카운트를 읽으며 도루 타이밍을 계산한다.

그는 “자신에게 과감함을 강조하지만 들뜨는 것과는 다르다”며 “볼카운트와 경

기 상황을 보면서 뛰어야 할 타이밍인지, 압박만 줘야 하는 상황인지를 계속 생각한다. 경기 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타격에서의 자신감도 확고하다. 김민규는 “타격에서 자신감은 항상 있었다. 결과보다 투수와의 싸움 과정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좋은 결과로 이

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스타팅에 나가서도 과정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비 역시 김민규의 강점이다. 그는 외야 수비의 교과서로 불리는 김호영에게 꾸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김민규는 “호령 선배님은 특별한 기술보다 기본적인 부분을 강조하신다”며 “타구가 맞는 순간보다 타자의 스윙과 궤도부터 예측하는 무빙 스타트를 많이 배운다. 저 역시 나구 지점에 남들보다 한두 발 먼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전했다.

그의 목표는 ‘슈퍼스타’ 김도영과 같은 선수가 되는 것이다. 더 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외야수를 바라본다.

김민규는 “욕심은 끝이 없다. 도영이 형 같은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서도 “오늘 잘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제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위치에 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도영이 형이나 (김)선빈 선배님처럼 팬들에게 사랑받고 환호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야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이범호 감독도 김민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감독은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 본인 자리가 되는 것”이라며 “타격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주루와 수비 등 다른 부분에서 팀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플레이는 공격적이지만 타석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 선수”라며 “좋은 때는 선발로, 아닐 때는 다른 역할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외야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SOOP, 배구단 초대 사령탑에 김세진

‘SOOP 수퍼스’ 새 팀명 확정 선수·팬 함께하는 구단 지향 신생팀 2년만 우승 이끈 경험



김세진

SOOP이 여자프로배구단의 이름을 ‘SOOP 수퍼스’로 확정하고 초대 사령탑으로 김세진 감독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창단 작업에 나섰다.

SOOP은 최근 AI페퍼스로부터 인수한 여자 프로배구단의 새로운 팀명을 ‘SOOP 수퍼스’로 결정하고 김세진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새 구단명인 SOOP 수퍼스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플랫폼 SOOP의 특성을 반영해 각기 다른 개성과 강점을 지닌 선수들이 하나의 팀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선수와 팬이 함께 구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팀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초대 감독으로 선임된 김세진 감독은 현역 시절 삼성화재와 국가대표팀의 주축 선

수로 활약한 한국 배구계의 대표적인 스타 출신 지도자다. 은퇴 후에는 OK저축은행 감독을 맡아 창단 2년 만에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SOOP은 앞으로 선수단 구성과 코칭스태프 선임, 구단 운영 체계 구축 등 창단 관련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구 팬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중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플랫폼과 구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박용수 전남도체육회 수석부회장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 총감독 선임

전남 체육인이 세계 생활체육 탁구 축제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다.

전남도체육회는 박용수 전남탁구협회장 겸 도체육회 수석부회장(사진)이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한국선수단 총감독으로 선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임은 전남 체육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박 총감독은 오랜 기간 전남 탁구 발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힘써온 인물로, 현장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점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 선수단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관하는 세



계 최고 권위의 마스터즈 탁구대회다. 지난 5일 개막해 오는 12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85개국에서 선수와 관계자 3000여명이 참가해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참가 선수들은 40세 이상 연령별 부문으로 나뉘 경기에 나선다.

전남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전남에서는 김현빈 선수가 50대부에 출전해 세계 각국 선수들과 경쟁하며 기량을 겨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